

『內經』中 五色에 관한 考察

片秀範 · 尹暢烈*

關於『內經』中五色的考察

色與五行配屬而適用於人體的方法有二. 一是將臟腑進行五行配屬, 進而演繹爲色與五臟的配屬的方法, 二是按“味生色”的原理, 通過味來配屬色的五行的方式, 而『內經』的「陰陽應象大論」等篇則屬於先將五臟配屬五行, 而後再配屬其色, 進而擴展到與人體組織及外部環境的變化相配屬. 關於五色的病理意義, 『內經』「痿論」和「風論」分別對各臟熱症與各臟風症的五官察色部位及 五色所現進行了說明, 「脈要精微論」對各臟的病色進行了說明, 在其他篇章對與各臟腑病症相關的病色進行了說明, 卽爲五色主病(如青主肝病, 赤主心病等). 關於五色各主之病變的性質, 「舉痛論」認爲是青黑痛, 白寒, 黃赤熱, 「皮膚論」認爲是青痛, 黑痺, 黃赤熱, 白寒, 「五色篇」認爲是青黑痛, 黃赤熱, 白寒, 黃赤風, 而「論疾診尺篇」則認爲是赤熱, 青痛, 黑久痺, 可見各篇五色所主略有差異. 在『靈樞·本藏篇』以提出“赤色小理者 心小”等理論, 通過奏理的五色和大小說明了各臟的大小, 在『靈樞·陰陽二十五人論』根據五行之不同說明了各人之特徵, 具體提出木形之人爲青色, 火形之人爲赤色, 按色與五行之關係說明了人體的體質特徵.

I. 緒論

『說文解字』에 보면 “色”字는 “人”字와 “巴”字의 合成字로서 “巴”字는 “節”字의 本字인 “口”字이므로 “色”은 곧 사람의 마음이 顏色으로 나타나는 現象을 일컫으며¹⁾, 여기에서 유래하여 넓게는 색깔을 뜻하게 되었다.

결국 兩眉間 사이를 顏이라 하고 精神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氣라고 하므로 顏氣, 氣色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色은 精神과 身體를 連結시키는 媒介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의 精神은 七情(喜怒哀樂愛惡欲)이 心으로부터 發하여 肉體를 거쳐 外界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色은 感情狀態를 몸밖으로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臟象이 된다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色은 五行學說과 結合하여 五色으로 구분되어져 人體에 適用하여 診斷과 生理, 病理上에서 有用하게 이용되어졌다.

韓醫學에 있어 靑·赤·黃·白·黑 五色은 生理·病理面에서 基本的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理論으로서 診斷에 있어서도 많이 適用되고 있다. 東洋醫學의 古典『素問·金匱眞言論』에 “東方靑色……入通於腎” 또는 「五臟生成論」에 “色味當五臟 白當……黑當腎臟”, “凡相五色之奇脈 面黃目靑……面赤目靑皆死也” 등의 언급이 이미 되어 있음을 考察하면 韓醫學의에 있어 五色理論이 生理, 病理, 診斷面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³⁾.

따라서 韓醫學에서 色은 東洋思想의 根幹을 이루는 五行學說에 따라 五色을 이루어 五行에 配屬하여 理解하고, 이를 다시 人體에 대입하여 診斷

*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원전학교실

1) 許慎 :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431~432.

“色, 顏氣也. 從人口, 凡色之屬皆從色.”

2) 공희일, 색체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국상 응모 논문집, p5

3) 신승우 외3, 색채요법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제10권 제2호, p505

과 病理, 生理的인 面에서 主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근래에는 대체의학으로써 色彩療法이라 하여 色을 이용한 疾病 治療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五行과 五色의 關係를 살펴보면 먼저 『內經』 前인 戰國시대의 책에서는 五行學說이 아직 普遍化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五行의 각각의 配屬이 一貫되지 않고 混配되어 있었으며 비로소 『內經』 시대에 들어서면서 陰陽五行說이 자리를 잡고 五行學說이 體系를 이루게 되면서 五行에 自然界의 現象을 대입하는 過程에서 五行歸類로써 五色과 人體와 自然界의 關係가 정립되었다.

그리하여 『內經』에는 五行을 人體의 生理·病理에서 臟腑와 經絡과 病因과 病機, 疾病의 診斷, 豫後등에도 應用되어 왔다. 여기서 五色은 韓醫學의 診斷法인 望聞問切에서 望診에서 顔面望診과 기타 皮膚와 經絡의 望診등에 應用되어 疾病의 原因과 豫後 臟腑의 虛實등을 診斷하는데 쓰였으며, 이러한 방법은, 『難經』, 『傷寒論』과 『金匱要略』같은 後代 醫書에서도 影響을 주게 되었고 지금도 臨床에선 이를 活用하고 있다.

기존의 五色에 관한 研究는 西洋의 色彩療法과 『靈樞·五色論』을 爲主로한 研究로 여기에 범위를 좀더 넓혀서 『內經』에 五色이 나타나있는 여러 篇들의 五色에 관한 內容들을 研究해 『內經』에 보이는 五色의 各色이 어떤색을 나타내는가와, 人體의 生命에 대입하여 生理와 病理의으로 應用하여 五色을 이용한 診斷을 살펴보고, 또한 色과 病因과 病理的인 關係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內經』에선 治療 하였는가를 考察하고자 한다.

먼저 五色이 『內經』 前 時代인 春秋·戰國時代에도 『內經』과 같은 五行과의 關係이루었는지를 考察해보고, 두 번째는 『內經』에서 五色이 나타난 篇들은 어떤 篇들이 있으면 그 篇들은 色과 관련하여 어떠한 內容을 說明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세 번째로 과연 우리가 말하는 靑赤黃白黑의 五色이란 精確히 어떤 色이며 그것을 『內經』에선 어떻게 表現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네 번째는 色은 결국 五行과 함께 人體에 적용되어지고 있는데 『內經』에서 五行의 歸類에 色이 포함되어 五色으로 나타남을 考察해보고, 다섯 번째는 五色이 주

로 診斷과 病理的인 面에서 사용되어져 왔는데 『內經』에서는 어떻게 이를 活用하고 있는가를 各 篇들을 들어 考察해 보고자한다.

II. 研究內容

1. 『內經』前時代의 五色에 대한 簡略한 醫學史的 考察

『內經』前의 五色의 記錄을 보면, 春秋時代에 『左傳』에 記載된 秦의 醫和의 事蹟을 살펴보면, 五味, 五色, 五聲의 개념이 나오고 이후의 診斷 및 藥理學說의 形成에 기초가 되었으며⁴⁾, 戰國時代에는 『左傳』昭 25년에 “生其六氣, 用其五行, 氣爲五味, 發爲五色, 章爲五聲”이라 하였고 또 昭元년에 “天有六氣降生五味, 發爲五色, 徵爲五聲”이라고 하여 五行에서 五味, 五色, 五聲등을 演繹했음을 알 수 있다⁵⁾. 또한 馬王堆에서 출토된 帛書의 『幼官編』에서 五色을 四時와 配屬시켰고, 『呂氏春秋』十二月期에서도 靑赤白黑을 關連시켰으나 그 配合이 일관되지 않았으며⁶⁾, 『周禮』天官에서 말하길 “以五氣, 五聲, 五色, 視其死生, 兩之以九竅之變, 參之以九臟之動”이라고하여 질병의 死生을 診斷하는데 주로 五氣, 五聲, 五色의 變化를 根據로 하였다⁷⁾.

五色의 配屬에 중요한 陰陽五行說은 戰國時代末에 普遍化 되기 시작하였고 西周時代 이후 春秋時代를 거치면서 五行은 日常生活에 꼭 필요한 五材의 概念 및 그 이상의 概念으로 사용되어 戰國時代에 이르러 燕齊의 方士들이 사용하던 五行概念이 다시 받아들여져 지금과 같은 陰陽五行이 普遍化 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⁸⁾, 그에 따라 五色도 이 時期에 五行說에 결합하여 보편화되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홍원식, 윤창렬,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7 p17

5) 홍원식, 윤창렬,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7 p29

6) 홍원식, 윤창렬,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7 p34

7) 홍원식, 윤창렬,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7 p56

8) 윤창렬, 醫哲學, 대전대학교 원진외사학실, 2002, p36

2. 『內經』中 五色에 관련된 篇에 대한 考察

『五色』篇은五色에 관한 疾病과 診斷方法등이 비교적 자세히 敍述되어 있어, 이전 研究에서는 이를 위주로 하여五色에 關하여 研究되었는데,本篇에서는 다른『內經』의 篇에 수록된五色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黃帝內經』에서五色이 나타난 篇들을 보고 그 內容을五色의 각각의 색에 관한 것과,五行에 따른五色의 配屬과 診斷과 病理的인 面에 대해 간단히 分類하여 說明하겠다.

먼저五色의 색에 대한 說明에서는『五臟生成論』에서는 顏色이 潤하고 神이 있는 生하는 색과 枯하며 無神하여 死하는 색, 隱隱하게 나타는 生氣의 外榮의 색이라 하여 外로 나타나는 五臟生氣表現의五色을⁹⁾,『脈要精微論』은 精明五色과五色精微象과 病證과 臟과의 關係와 색으로 新舊病의 구분, 脈과 색의 關係에 대하여 나오며『經絡論』에서는 臟과 經絡의 색과 四時에 따른 絡脈의 變化와 常色에 관한 것을 說明하였다.

五行에 따른五色의 配屬에 關하여『陰陽應象大論』과『五運行大論』은五行에 따라 方位, 氣, 味, 臟, 體, 五官등과 함께五色을 配屬하였고,『金匱真言論』은五色과 方位, 臟腑, 五官을 配屬하였으며,『六節臟象論』은五色을五行에 따라 臟, 華, 充, 味와 함께 配屬하였고,『靈樞·五味』篇에서는 색과 味の 關係를『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篇에서는 臟, 時, 音, 味, 天干과 함께 색을 配屬하는 五變의 意義와 五變主病과 相應關係의 五俞穴을 刺하여 治療함을¹⁰⁾,『靈樞·五音五味篇』에서는 색과 臟, 時, 味, 穀食의 關係를 說明하였다.

五色을 통한 望診에 關하여는『五色篇』은 臟의 색配屬과 함께 색의 上下左右內外다른 顔面 望診과 病의 進行을 살피는 診斷方法이 나오며, 이외에도五色에 대하여 매우 자세히 敍述되어 있어五色에 관한 중요한 篇이 되고,『靈樞·五閱五使』篇은 明堂 察色에 부분이 나오며 五官과五色을 觀察하여 五臟의 常과 變을 살피는 方法에 주요한 篇이 되고¹¹⁾,『風論』은 臟의 風症과 顔面望色과

望部位에 關하여 나오고,『素問·刺熱論』에서는 五臟의 熱에 따라 색이 나타나는 部位를,『靈樞·小針解』는 눈과 察色에,『玉板論要』는 색의 淺深과 左右에 따른 從逆과,『靈樞·經脈篇』은 魚際部位 색으로 胃의 寒熱을 診斷하고,『痿論』은 五臟의 熱을 색으로 診斷하는 것을 說明하였다.

脈診과 察色에 대하여『奇病論』에서는 脈診과 함께 察色부분이 나오며,『玉機眞臟論』에서는 眞臟脈과 색의 關係등을 색과 脈의 相關關係로 보여 주고 있고,『邪氣臟腑病形』篇에서는 망진과 尺膚色과 脈의 診斷의 重要性을 說明하였다¹²⁾.

五色과 관련된 病理的인 部分에 대하여『異法方宜論』에서는 生活環境과 食生活에 따른 皮膚色과 疾病과 治療方法에 대하여 論하였고,『舉痛論』에서는 顏色을 察色하여 熱寒痛의 病을 살피는 것을,『皮膚論』에서는 浮絡은 陽明經의 絡에 屬하며 顏色의 색으로 寒熱痛痺을 論하였으며¹³⁾,『靈樞·本臟篇』은 색과 奏理로 臟腑의 大小를 論하였고,『靈樞·陰陽二十五人論』은 人體의 稟賦不同으로五行에 색을 結合하고 五音을 歸納하여 二十五種의 體質의 特性을 말하였다¹⁴⁾.

『黃帝內經』은五行學說의 影響을 받아서 五臟과五行을 相配시키고 이를 다시 推演하여 全身의 臟器 組織 精神活動 및 外界環境의 變化까지도 모두 五臟과 관련시켰는다¹⁵⁾. 이五行을 人體에 結付시키는데는 五臟을 基本으로 하여 五色·五體·五官·五志등과 生理機能 혹은 病理變化에서 밀접한 關係가 있어¹⁶⁾ 이중에서五色은五行에 따라 색을 配屬하고 이를 다시 人體에 적용하여 生理, 病理의 關係를 說明하였는데, 위에 篇들을 살펴보면五色은五行에 配屬하였고 그 속에서 일정한 規律를 가지고 診斷과 病理的인 面에서 活用하였다.

11)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537

12)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79

13)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一中社, 서울, 1992. p403

14)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198

15) 홍원식, 윤창렬,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7 p61

16) 홍원식, 윤창렬,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7 p67

9)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95

10)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25

3. 『內經』에 나오는 五色의 色彩

韓醫學에서 望診時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色彩의 種類에 따른 分類로는 正色, 間色, 雜色이 있는데, 특히 正色은 韓醫學의 五色(靑·赤·黃·白·黑)과 같으므로 望診할 때의 基準이 된다.¹⁷⁾

『五行大義』에 따르면, 五色이 相生으로 作用될 때를 正色이라고 하며, 順이므로 陽으로 여겼고, 五色이 相克으로 작용되어 色이 相生되면 이를 間色이라고 하는데 逆이므로 陰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또한 “章爲五色者, 東方木爲蒼色, 萬物發生, 夷柔之色也(후략)…….” 五正色에 關하여 적고 있고,¹⁸⁾ “色黑如羣畜穹閭, ……(중략)……, 色赤聚隅如幡旗鳥頭, ……(중략)……, 色蒼擗撒布散如休木, ……(중략)……, 色白鋒積如刀刃之浮, ……(중략)……, 色黃如城墉之形.”라하여 色의 性質을 비유를 통해 적고 있다.

五色	五色爲生氣見	五色爲死氣見
靑	靑如翠羽	靑如草葉
赤	赤如鷄冠	赤如衄血
黃	黃如蟹腹	黃如枳實
白	白如豕膏	白如枯骨
黑	黑如鳥羽	黑如水苔

여기서 翠羽色, 鳥羽色, 鷄冠色 등이 각각 정확히 어떤 色을 말하는지는 찾기 어렵고, 近似的인 指稱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五正色을 『內經』에서 살펴보면, 五色도 하나의 色으로 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生氣의 有無에 따라 人體生理의 情況이 좋고 나쁨이 있으니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夫精明五色者, 氣之華也. 赤欲如帛裹朱, 不欲如赭 白欲如鷺羽, 不欲如鹽 靑欲如蒼璧之澤, 不欲

如藍 黃欲如羅裹雄黃, 不欲如黃土 黑欲如重漆色, 不欲如地蒼.”²⁰⁾이라 하여 예를 들어 붉은 빛이 주사를 비단으로 쌓은 듯한 潤澤한 色이 나오면 火의 상태가 온전한 것이, 붉은 色과 같이 윤기가 없으면 火의 상태, 또는 心臟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을 나타낸다²¹⁾.

『素問·五臟生成篇』에서는 五臟之氣의 生과 死를 論하였으니, 死에 대하여 “五臟之氣. 故色見靑如草茲者死, 黃如枳實者死, 黑如衄者死, 赤如衄血者死, 白如枯骨者死, 此五色之見死也.”라고 하였으며 生에 대하여 “靑如翠羽者生, 赤如雞冠者生, 黃如蟹腹者生, 白如豕膏者生, 黑如鳥羽者生, 此五色之見生也.”²²⁾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高士宗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五臟之氣는 色으로 驗之하는데, 草茲는 死草之色으로 靑에 白을 兼하였기 때문에 草茲와 같이 靑色을 보인자는 死하니 肝氣가 敗함이고, 枳實의 黃色은 靑을 兼하기 때문에 枳實과 같이 누런 사람은 死하니 脾氣가 敗한 것이다. 衄는 烟塵으로 黑色과 黃色이 兼하기 때문에 衄와 같이 검은색은 死하니 腎氣가 敗한 것이다. 衄血은 凝聚한 血로서 赤色에 黑色을 兼하기 때문에 衄血과 같이 붉은 者는 死하니 心氣가 敗한 것이다. 枯骨은 枯朽之骨로서 白色과 靑色을 兼하기 때문에 枯骨과 같이 하얀 者는 死하니 肺氣가 敗한 것이다. 이는 五色之見이 禿하여 死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死症의 色을 五行의 相禿으로 理解하여 풀이하고 있다. 또 生하는 色에 대해서는 五色의 正色을 들어 설명하니 光潤華采한 卦답에 生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또 『五臟生成篇』에서 正常色에 대하여 “生於心, 如以縞裹朱. 生於肺, 如以縞裹紅. 生於肝, 如以縞裹紺. 生於脾, 如以縞裹橘實. 生於腎, 如以縞裹紫, 此五臟所生之外榮也.”라 하여 精華가 안에 含蓄되어 있어서 內部의 光華가 外部로 潤澤하게 表現됨을 說明하고 있다²³⁾.

17)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한국상용모 논문집, p20
 18)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한국상용모 논문집, p18
 19)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한국상용모 논문집, p45

20)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471
 21) 김광호, 時空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p25
 22)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193
 23) 김광호, 時空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p26

이 「五臟生成論」과 「脈要精微論」을 다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正常色	五臟生成論	脈要精微論
肝	靑如以縞裏紺	靑如蒼蠶之澤
心	赤如以縞裏朱	赤如白裏朱
脾	黃如以縞裏括裏實	黃如羅裏雄黃
肺	白如以縞裏紅	白如鷺羽
腎	黑如以縞裏紫	黑如重漆色

眞臟色	五臟生成論	脈要精微論
肝	靑如翠羽	靑如藍
心	赤如鷄冠	赤如赭
脾	黃如蟹腹	黃如黃土
肺	白如豕膏	白如藍
腎	黑如鳥羽	黑如地蒼

察色에 있어서五色뿐만 아니라色澤을 아울러重視 여겼다. 여기서澤이란 신선, 광, 선명, 暗 등의光彩를 말하는데 診斷의 方法으로 사람의顔色이나皮膚, 舌의 色澤등을 보고病을 診斷하였으며, 「脈要精微論」과 같이色에 있어서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간파하였고²⁴⁾, 이色澤에 따라病의 情況이 달라짐을 說明하였다.

4. 『內經』에서 五色의 五行臟腑配屬

色彩의 韓醫學的 適用 方法論에서는 味와 色을 바로 연결시킨 것은 醫書 外에서는 찾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味와 色을 연결시켜주는 패러다임이 五行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구현할 장소를 人體外에서는 찾지 못했기 때문이며, 人體만이 이 둘 概念을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²⁵⁾ 하였으며, 또한 五味의 性질에 대한 出典은 『食經』²⁶⁾, 오행과의 결합에 대한 出典은 『抱朴子』²⁷⁾,

五色의 性질에 대한 出典은 『五行大義』²⁸⁾이며, 五臟과 결합한 것은 『本草備要』²⁹⁾를 중심으로 하였다고 說明하였고, 또한 色은 人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概念의 연결이 가능하므로 臟腑와 聯關을 시켜야 하는데, 맛에 해당하는 것은 味와 臭이므로 臟腑의 異常時 治療하는 음식과의 관계 속에서 臭·味와 臟腑를 연결할 수 있고, 정상적인 몸을 만드는 原理는 五行의 相生에 따르도록 한 것을 『五行大義』에서 찾을 수 있는데, “此五食皆以所生能養其子也”라는 【味生色】의 理論을 說明하였다³⁰⁾.

결국, 色의 性질은 그 運用에 있어서는 相生·相剋을 中心으로 움직이는데 生色과 死色은 앞에서 언급했던 正色과 間色の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人體에 適用시키면 肉體뿐만 아니라 精神의 方面까지도 影響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³¹⁾.

따라서 이러한 作用을 할 수 있도록 五行에 어떻게 配屬되었으며 기타 다른 것과는 어떻게 聯關되어있나를 살펴보면, 『內經』의 各篇에서 보이는 五色의 대한 五行에 따른 五行歸類 配屬으로는 「五運大論」과 「陰陽應相大論」에 “岐伯對曰：東方生風，風生木，木生酸，酸生肝，肝生筋，筋生心，肝主目。其在天爲玄，在人爲道，在地爲化。化生五味，道生智，玄生神，神在天爲風，在地爲木，在體爲筋，在臟爲肝，在色爲蒼，……南方生熱，熱生火，火生苦，苦生心，心生血，血生脾，心主舌。其在天爲熱，在地爲火，在體爲脈，在臟爲心，在色爲赤，……中央生濕，濕生土，土生甘，甘生脾，脾生肉，肉生肺，脾主口。其在天爲濕，在地爲土，在體爲肉，在臟爲脾，在色爲黃，……西方生燥，燥生金，金生辛，辛生肺，肺生皮毛，皮毛生腎，肺主鼻。其在天爲燥，在地爲金，在體爲皮毛，在臟爲肺，在色爲白，……北方生寒，寒生水，水生鹹，鹹生腎，腎生骨髓，髓生肝，腎

28) 蕭吉：五行大義，台北，新文豐出版公司，中華民國76年，pp.77~78.

29) 楊東喜，本草備要解析，國興出版社，台北，中華民國74年，p1

30)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곡상용모 논문집, p30

31)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곡상용모 논문집, p31

24) 신승우 외3, 색채요법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제10권 제2호 p150

25)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곡상용모 논문집, p29

26) 趙炳彩 編譯：食經，서울，자유문고，1992，p.89.

27) 葛洪：抱朴子，서울，자유문고，1989，pp.77~78.

主耳。其在天爲寒，在地爲水，在體爲骨，在臟爲腎，在色爲黑，”³²⁾라 하였고, 『金匱眞言論』에서는 “帝曰：五臟應四時，各有收受乎。岐伯曰 有。東方青色，入通於肝，開竅於目，藏精於肝，…… 南方赤色，入通於心，開竅於耳，藏精於心，…… 中央黃色，入通於脾，開竅於口，藏精於脾，…… 西方白色，入通於肺，開竅於鼻，藏精於肺，…… 北方黑色，入通於腎，開竅於二陰，藏精於腎，”³³⁾이라 하였으며, 『六節臟象論』에서는 “肝者，罷極之本，魂之居也，其華在爪，其充在筋，以生血氣，其味酸，其色蒼，此爲陽中之少陽，通於春氣。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倉廩之本，營之居也，名曰器，能化糟粕，轉味而入出者也，其華在唇四白，其充在肌，其味甘，其色黃，此至陰之類，通於上氣。”³⁴⁾라 하였으며, 『五色』篇에서는 “以五色命臟 青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爲脾 黑爲腎 肝合筋 心合脈 肺合皮 脾合肉 腎合骨也.”³⁵⁾라 하여 臟에 色을 직접 配屬하였고,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에서는 “黃帝曰 願聞五變 岐伯曰 肝爲牡臟 其色青 其時春 其音角 其味酸 其日甲乙 心爲牡臟 其色赤 其時夏 其日丙丁 其音徵 其味苦 脾爲牝臟 其色黃 其時長夏 其日戊己 其音宮 其味甘 肺爲牝臟 其色白 其音商 其時秋 其日庚辛 其味辛 腎爲牝臟 其色黑 其時冬 其日壬癸 其音羽 其味鹹 是爲五變”³⁶⁾라 하여 天干을 配屬하였으며, 『靈樞·五音五味篇』에 “上徵與右徵同 穀麥 畜羊 果杏 手少 臟心 色赤 味苦 時夏 上羽與大羽同 穀大豆 畜彘 果栗 足少 臟腎 色黑 味鹹 時冬 上宮與大宮同 穀稷 畜牛 果棗 足太 臟脾 色黃 味甘 時季夏 上商與右商同 穀黍 畜雞 果桃 手太 臟肺 色白 味辛 時秋 上角與大角同 穀麻 畜犬 果李 足厥 臟肝 色青 味酸 時春”³⁷⁾라고 하여 四時와 五臟, 色, 家畜, 五音이 應한다 하였다.

또한 色과 味의 關係에서는 『五臟生成論』에서는 “色味當五臟，白當肺辛，赤當心苦，青當肝酸，黃當脾胃甘，黑當腎鹹，故白當皮，赤當脈，青當筋，黃當肉，

黑當骨.”³⁸⁾라 하였고, 『靈樞·五味』篇에서 “五色 黃色宜甘 青色宜酸 黑色宜鹹 赤色宜苦 白色宜辛” “肝色青 宜食甘 秣米飯牛肉棗葵皆甘 心色赤 宜食酸 犬肉麻李韭皆酸 脾色黃 宜食鹹 大豆豕肉栗蠶皆鹹 肺色白 宜食苦 麥羊肉杏薤皆苦 腎色黑 宜食辛 黃黍雞肉桃葱皆辛”³⁹⁾라 하여 各各의 음식물까지 열거하여 그 關係를 상세히 說明하였다.

臟과 經絡의 色配屬을 보면 『經絡論』에 “黃帝問曰 夫絡脈之見也，其五色各異，青黃赤白黑不同，其故何也。岐伯對曰 經有常色，而絡無常變也。帝曰 經之常色何如。岐伯曰 心赤，肺白，肝青，脾黃，腎黑，皆亦應其經脈之色也。”라 하여 經絡과 色을 配屬하였고, 絡脈을 살펴보면 『經絡論』에 “帝曰 絡之陰陽，亦應其經乎。岐伯曰 陰絡之色應其經，陽絡之色變無常，隨四時而行也。寒多則凝泣，凝泣則青黑，熱多則淖澤，淖澤則黃赤，此皆常色，謂之無病。五色具見者，謂之寒熱。”⁴⁰⁾이라 하여 色으로 絡의 寒熱을 나타낸다 하였다.

『黃帝內經』에서 五行學說의 影響을 받아서 五臟과 五行을 相配시키고 이를 다시 推演하여 全身의 臟器 組織 精神活動 및 外界環境의 變化까지도 모두 五臟과 관련시켰으며, 五臟은 五體·五官·五志·五色등과 生理機能 혹은 病理變化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따라서 五臟의 歸類는 五臟을 통하여 六腑·五體·五官·五志·五色등으로 配合되어 一系列의 關係가 형성된다고 하여⁴¹⁾ 五臟을 통하여 人體에 適用하고 그 歸類와의 關係를 나타냄은, 위의 『五運行大論』, 『陰陽應象大論』, 『金匱眞言論』, 『五色篇』등 各篇의 文句를 살펴보면 臟이 色과 함께 出現하므로 色을 五行에 配屬함에 있어 五臟에 함께 포함되어서 表現되어져 五行이 배속된 五臟이 매개체가 되어 色과 味가 속한다는 것으로, 위에서 말한 味가 色을 生한다 하여 味를 통하여 色을 五行에 配屬했다는 [味生色]보다는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32)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48

33)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74

34)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92

35)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29

36)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317

37)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461

38)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194

39)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110

40)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407 - 408

41) 홍원식, 윤창렬,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7 p61

5. 『內經』에서 診斷, 病理的 五色의 活用

1) 診斷에서 五色의 活用

1. 望診의 察色

色과 관련하여서는 『內經』에서 五行에 歸屬시켜 주로 生理와 病理와 관련시켜 治療보다는 診斷에 많이 이용해 왔다. 韓醫學의 診斷은 “有諸內者, 必形于外”라는 原理에 따라 人體의 外

部에 나타나는 모든 現象을 望聞問切의 四診을 通하여 體內的 生理 및 病理的 狀態를 알아내는 것을 그 特徵으로 하고 있다, 특히 四診中에서도 望診을 가장 重視하여 『難經』에서는 “望而知之者 謂之神, 聞而知之 謂之聖, 問而知之 謂之工, 切脈而知之 謂之巧”라고 해서 望聞問切中에 望診을 診斷의 최고경지로 인식하였으며 『靈樞·本藏篇』에서도 “視其外應, 以知其內藏, 則知所病矣”⁴²⁾ 이라 하고, 朱丹溪는 “欲知其內者, 當以觀乎外”라고 하여 望診이 診斷의 必順의인 要素임을 說明하였다⁴³⁾.

『內經』에 望診에 관하여는 기록이 자못 상세하다, 그 重點은 面部와 眼睛의 五色變化와 沈浮, 聚散, 澤澤, 明暗등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面部를 몇 개의 部分으로 나누어 어느 部位는 어느 臟腑의 病變이 나타난다고 正해 놓았다. 이러한 것은 色調의 沃澤으로 疾病의 豫後를 判斷하는데 도움을 준다. 비교적 중요한 것은 “靑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爲脾, 黑爲腎”등 五色으로 五臟의 病變을 반영하거나 黃赤爲風, 靑黑爲痛, 白爲寒, 黃而靑潤爲膿 赤甚者爲血 등 (이상 『靈樞·五色篇』) 五色으로 病變의 性質을 確定하는 것이다. 이외에 血脈의 色을 診斷하여 病變의 性質을 定하는 方法으로 『靈樞·論疾診尺篇』에 “診血脈者 多赤多熱 多靑多痛, 多黑爲久痺, 多赤多黑多靑皆見者 寒熱身痛”⁴⁴⁾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實踐經驗을 基礎로 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臨床에서 實用되고 있고⁴⁵⁾, 後代 醫家인 張仲景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도 예로 “陽明病 面合赤色 不可攻之 攻之

則 必發熱色黃 小便不利也”⁴⁶⁾, “少陰病, ……(중략)……, 其人面赤色 或腹痛 或乾嘔 或咽痛 或利止 脈不出者 通脈四逆湯 主之”⁴⁷⁾, “少陰病 自利清水 色純靑 心下必痛 口乾燥者 急下之 宜大承氣湯”⁴⁸⁾등과, 『金匱要略』에 “病人有氣色見于面部 願聞其說 ……(중략)…… 師曰 鼻頭色靑腹中痛苦冷者死 一云腹中冷苦痛者死鼻頭色微黑者 有水氣 色黃者 胸上有寒色 白者亡血也 設微赤非時者死 其目正圓者瘥 不治 又色靑爲痛 色黑爲勞 色赤爲風 色黃者便難 色鮮明者有留飲”⁴⁹⁾이라 하여 面部의 色診을 통해 病을 파악할 수 있음을 적고 있다.

여기서는 『內經』의 篇中에서 나오는 顔面望診의 部位와 病의 情況과, 經絡과 色의 關係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顔面望診部位와 色

臟病의 顔面察色과 찰색부위에 대하여, 『素問·刺熱論』에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顔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 病雖未發, 見赤色者刺之, 名曰治未病.”⁵⁰⁾이라 하여 赤色이 顔面의 어느 部位에 나타나는가에 따라 그 部位에 해당되는 臟腑의 熱을 살렸고, 『風論』에선 “帝曰. 五臟風之形狀不同者何. 願聞其診及其病能. 岐伯曰. 肺風之狀, 多汗惡風, 色皴然白, 時欬短氣, 晝日則差, 暮則甚, 診在眉上, 其色白. 心風之狀, 多汗惡風, 焦絕善怒嚇, 赤色, 病甚則言不可快, 診在口⁵¹⁾, 其色赤. 肝風之狀, 多汗惡風, 善悲, 色微蒼, 噎乾善怒, 時憎女子, 診在目下, 其色靑. 脾風之狀, 多汗惡風, 身體怠惰, 四支不欲動, 色薄微黃, 不嗜食, 診在鼻上, 其色黃. 腎風之狀, 多汗惡風, 面瘡然浮腫, 脊痛不能正立, 其色皁, 隱曲不利, 診在肌上⁵²⁾, 其色黑”⁵³⁾이라 하여 각 臟風症에 따른 顔面의 色과 나타나는 部位와 症狀를 列擧하면서 각

42)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358

43) 신승우 외3, 색채요법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제10권 제2호 p149

44)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526

45) 홍원식, 윤창렬,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7 p75

46) 張仲景, 仲景全書, 一中社, 서울, 1992. p213

47) 張仲景, 仲景全書, 一中社, 서울, 1992. p259

48) 張仲景, 仲景全書, 一中社, 서울, 1992. p262

49) 張仲景, 仲景全書, 一中社, 서울, 1992. p334

50)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259

51) 口를 『素問直解』에는 舌, 또는 唇舌이라 하였다.

52) “肌上”은 『甲乙經』과, 『太素』에선 頤上으로, 『三因方』에선 耳라 하였다.

53) 靖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381

장이 옹하는 부위를 말하였고⁵⁴⁾, 『靈樞·五閱五使』篇에서 “黃帝曰 願聞五官 岐伯曰 鼻者 肺之官也 目者 肝之官也 口唇者 脾之官也 舌者 心之官也 耳者 腎之官也.”라 하여 五官을 五臟에 配하였으며 “肺病者 喘息鼻脹 肝病者 皆青 脾病者 唇黃 心病者 舌卷短 顛赤 腎病者 顛與顏黑”⁵⁵⁾ 各臟의 病症에 따른 色과 나타나는 部位와 그 症狀을 열거하였으므로 이를 表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刺熱論 (赤色出部)	風論 (各臟色出)	五閱五使篇 (各臟色出)
肝	左頰	目下	眥
心	頰	口 (舌-『素問直解』)	(舌) 頰
脾	鼻	鼻上	脣
肺	右頰	眉	(鼻)
腎	頤	肌上(『甲乙經』, 『太素』- 頤上, 『三因方』-耳)	(耳) 頰與頤

이와 같이 顔面에 臟腑와 相關하는 部位가 있다. 人體의 臟腑는 面部에 모두 그와 相關하는 對應部位를 가지고 있다. 『靈樞·五色篇』에도 “五色之見也 各出其色部”라고 하였는데 이는 面部의 臟腑가 對應하는 部位가 있다는 것을 指稱한다. 이를 後天 八卦로 配屬하면 額部는 天庭으로 離卦에 頤部는 地角이 되어 坎卦에 左頰은 靑龍으로 震卦에 右頰은 白虎라고 하여 兌卦에 鼻는 面王이라하여 中央에 居하며, 이를 心腎肝肺脾를 配屬하면 面部에 相應하는 臟腑가 『刺熱論』과 같이 位置하게 되는 것이다.⁵⁶⁾ 따라서 이 部位의 色澤을 살펴 臟腑의 狀態를 診斷하는 것이다.

臟腑의 顔面望診시 部位와 色에 대하여는 『五色論』에 “腎乘心 心先病 腎爲應 色皆如是 男子色在於面王 爲小腹痛 下爲卵痛 其圍直爲莖痛 高爲本 下爲首 狐疝瘡陰 之屬也 女子在於面王 爲膀胱子處之病 散爲痛 搏爲聚 方員左右 各如其色形 其隨而下至眦 爲淫 有潤如膏狀 爲暴食不潔 左爲左 右爲右 其色有邪 聚散而不端 面色所指者也 色者 靑黑赤白黃 皆端滿有別鄉 別鄉赤者 其色赤 大如榆莢

在面王爲不日 其色上銳 首空上向 下銳下向 在左右如法 以五色命臟 靑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爲脾 黑爲腎 肝合筋 心合脈 肺合皮 脾合肉 腎合骨也”⁵⁷⁾이라 하여 靑赤黃白黑을 각각 肝心脾肺腎에 配屬하여 이 臟病色이 나타나는 部位에 따라 다른 臟과 의 病에 대하여 말하였다.

明堂위주로 五臟과 六腑를 察色에 대해서는 『五色』篇에 “雷公問於黃帝曰 五色獨決於明堂乎 小子未知其所謂也 黃帝曰 明堂者 鼻也”⁵⁸⁾이라 하여 明堂이 鼻라고 하였으며, 또한 “闕者 眉間也 庭者 頰也 蕃者 頰側也 蔽者 耳門也 其間欲方大 去之十步 皆見於外 如是者壽 必中百歲 雷公曰 五官之辨奈何 黃帝曰 明堂骨高以起 平以直 五臟次於中央 六腑挾其兩側 首面上於闕庭 王宮在於下極 五臟安於胸中 眞色以致 病色不見 明堂潤澤以靑 五官惡得無辨乎”이라 하여 明堂인 鼻를 중심으로 顔面의 各部位를 살피는 것을 말하였으며, 雷公曰 其不辨者 可得聞乎 “黃帝曰 五色之見也 各出其色部 部骨陷者 必不免於病矣 其色部乘襲者 雖病甚 不死矣 雷公曰 官五色奈何 黃帝曰 靑黑爲痛 黃赤爲熱 白爲寒 是謂五官” 이 篇에선 明堂을 爲主로 臟腑와 六腑의 察色部位와 色에 따라 病이 다르다 하였고, 『靈樞·五閱五使』篇에서는 “脈出於氣口 色見於明堂 五色更出 以應五時 各如其常經氣入臟 必當治裏”⁵⁹⁾이라 하여 五色이 明堂에서 出하여 五時에 應한다고 하여 明堂이 顔面 察色에 중요한 部分이 된다.

이를 살펴보면 五臟의 病程을 살피는데는 五臟에 따라 肝은 目, 心은 舌, 脾는 口, 肺는 鼻, 腎은 頤를 配屬한 五官의 色을 살피는 方法과, 顔面 전체 部位를 心은 頰, 肝肺는 左右頰 脾는 鼻, 腎은 頤로 配屬하여 察色하는 것과, 顔面의 중심인 鼻를 爲主로하여 鼻는 五臟의 情況을 鼻주위는 六腑를 配屬하여 色으로 情況을 살펴보는 方法이 있고, 또한 明堂에 出하는 五色을 살펴보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

(2) 病의 情況과 色과의 關係

54) 정사덕외, 내경, 지음출판사, 북경, 1984. p382

55)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298

56) 윤창렬, 醫易學, 대전대학교 원전의사학실, 2002, p169

57)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24

58)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24

5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298

『五色』篇에 顔面望診의 要領과 方法이 비교적 자세히 敍述되어 있는데, 먼저 “雷公曰 以色言病之間甚 奈何 黃帝曰 其色麗以明 沈夭者爲甚 其色上行者 病益甚 其色下行 如雲微散者 病方已 五色各有臟部 有外部 有內部也 色從外部走內部者 其病從外走內 其色從內走外者 其病從內走外 病生於內者 先治其 後治其陽 反者益甚 其病生於陽者 先治其外 後治其內 反者益甚”⁶⁰⁾이라 했는데 여기서 “內外”는 『靈樞集注』에서 朱永年이 五臟은 中央에 있어 內部가 되고 六腑는 兩側에 俠하여 外部가 되어 內外로 內·外因之病이라고⁶¹⁾ 하여 色의 內外와 上下로 病의 狀態를 診斷하였고, 또한 “沈濁爲內 浮澤爲外 黃赤爲風 青黑爲痛 白爲寒 黃而膏潤爲膿 赤甚者爲血痛 甚爲癢 寒甚爲皮不仁 五色各見其部 察其浮沈 以知淺深 察其澤夭 以觀成敗 察其散搏 以知遠近 視色上下 以知病處 積神於心 以知往今 故相氣不微 不知是非 屬意勿去 乃知新故 色明不麗 沈夭爲甚 不明不澤 其病不甚 其色散 駒駒然未有聚 其病散而氣痛 聚未成也”⁶²⁾라 하여 望診時에 各色의 主症과 浮沈, 澤夭, 散搏을 살펴 病의 豫後를 判斷함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좀더 설명하면, 浮沈 : 浮는 皮膚사이에 나타나는 色, 沈은 皮膚內에 숨어있는 色으로 浮沈으로 表裏를 구분할 수 있으며, 清濁 : 青者는 青明이니 濁者는 濁暗으로 清濁은 陰陽을 구분하고, 微甚 : 色이 淺淡한 것을 微, 色이 深濃한 것을 深으로 微深은 虛實을 구분하며, 散搏 : 散은 疏離하니 그 色은 開하고 搏은 壅滯하니 그 色이 閉하여 散搏은 久近을 구분하고 澤夭 氣色이 滋潤한 것을 澤이라 하고 氣色이 枯稿한 것을 夭라고 하며 澤夭가 成敗를 구분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⁶³⁾.

또한 望診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色澤인데, 이것은 神의 有無와 연관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有神과 無神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色의 光的 性質과도 연관이 된다.⁶⁴⁾

이와 같이 顔面에 나타난 色澤과 色의 沈浮, 清濁, 微甚, 散搏등을 살펴 病의 情況을 診斷하였다.

新舊病 구분에 대해서는 『脈要精微論』에 “微其脈小, 色不奪者, 新病也. 微其脈不奪, 其色奪者, 此久病也. 微其脈與五色得奪者, 此久病也. 微其脈與五色俱不奪者, 新病也.”⁶⁵⁾라하여 色과 脈으로 新舊病을 구분하였다.

病의 進行狀態는 『五色』論에 “雷公曰 以色言病之間甚 奈何 黃帝曰 其色麗以明 沈夭者爲甚 其色上行者 病益甚 其色下行 如雲微散者 病方已 五色各有臟部 有外部 有內部也 色從外部走內部者 其病從外走內 其色從內走外者 其病從內走外.”⁶⁶⁾라 하여 病의 間甚과 內外를 구분하고, 『玉版論要』에선 “容色見上下左右, 各在其要. 其色見淺者, 湯液主治, 十日已. 其見深者, 必齋主治, 二十一日已. 其見大深者, 醪酒主治, 百日已. 色夭面脫, 不治, 百日盡已. 脈短氣絕死, 病溫虛甚死. 色見上下左右, 各在其要. 上爲逆, 下爲從, 女子右爲逆, 左爲從. 男子左爲逆, 右爲從. 易重陽死, 重陰死.”⁶⁷⁾라 하여 色의 淺深으로 病의 輕重을 살펴 治療하였다.

生死의 判別에는 생과 사의 색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했던 『脈要精微論』과 『五臟生成論』의 生死色과, 『五色論』의 “雷公曰 病小愈而卒死者 何以知之 黃帝曰 赤色出兩額 大如母指者 病雖小愈 必卒死 黑色出於庭 大如母指 必不病而卒死 雷公再拜曰 善哉 其死有期乎 黃帝曰 察色以言其時”⁶⁸⁾라 하여 卒死의 察色에 대하여 보여 주고 있고, 또한 색채의 學的 적용 방법론 연구에서는 『五行大義』는 “青如翠羽, 黑如鳥羽, 赤如鷄冠, 黃如蟹腹, 白如豕膏, 此五色爲生氣見.”⁶⁹⁾, “青如草紫, 黑如水苔, 黃如枳實, 赤如衄血, 白如枯骨, 此五色爲死氣見.”⁷⁰⁾라 하여 각각 色으로 진단하여 生死吉凶을 판단하는 법을 『甲乙經』을 인용하여 적고 있다⁷¹⁾.

60)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24

61)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24

62)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24

63) 김광호, 時·空 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p30

64) 趙憲泳 : 通俗漢醫學原論, 서울, 眞玄, 1980, pp.200~201.

65)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483

66)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24

67)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119

68)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24

69) 中村璋八 : 五行大義校注, 東京, 汲古書院, 昭和 59年, p.88.

70) 中村璋八 : 五行大義校注, 東京, 汲古書院, 昭和 59年, p.88.

71)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

望診에서 눈의 察色은 중요시 되는데, 『靈樞·小針解』에서 “觀其色 察其目 知其散復 一其形 聽其動靜者 言上工知相五色於目 有知調尺寸小大緩急滑濇 以言所病也 知其邪正者 知論虛邪與正邪之風也”라 하고, 또 “所以察其目者 五臟使五色循明 循明則聲章 聲章者 則言聲與平生異也”이라 하였으며, 또한 『靈樞·論疾診尺論』에서는 “目赤色者病在心, 白在肺, 青在肝, 黃在脾, 黑在腎. 黃色不可名者, 病在胸中”⁷²⁾이라 하였으며, 『五臟生成論』에서 “凡相五色之奇脈, 面黃目青, 面黃目赤, 面黃目白, 面黃目黑者, 皆不死也. 面青目赤, 面赤目白, 面青目黑, 面黑目白, 面赤目青, 皆死也.”라 하여 面色과 함께 目色을 察色 하여 生死를 辨別한다고 하였으며, 神의 有無에 관하여는 『素問·脈要精微論』의 “夫精明五色者氣之華也”를 李仲梓는 “精明見于目 五色顯于面 皆氣之華也”⁷³⁾라고 하였듯이 神은 눈과 얼굴을 통하여 주로 드러나게 되고, 『素問·六節臟象論』에서는 心은 生의 根本이며, 神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 외부적인 表徵은 面部로 發顯되어진다고 말하여⁷⁴⁾, 神의 有無를 살피기 위하여 눈을 살피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上述된 篇들의 內容을 살펴보면 顔面望診時 神의 精明의 色과 面色과의 關係는 病의 狀況과 生死判斷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經絡과 色의 關係

經絡과 色의 關係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靈樞·經脈篇』에 “凡診絡脈 脈色青 則寒且痛 赤則有熱 胃中寒 手魚之絡多青矣 胃中有熱 魚際絡赤 其暴黑者 留久痺也 其有赤有黑有青者 寒熱氣也 其青短者 少氣也”⁷⁵⁾라 하여 魚際 部位나타나는 絡脈의 色으로 胃의 寒熱을 診斷하였다.

經絡의 色에 대하여는 『經絡論』에 敘述된 “黃帝問曰 夫絡脈之見也, 其五色各異, 青黃赤白黑不同, 其故何也. 岐伯對曰 經有常色, 而絡無常變也.”에는

經은 常色이 있고 絡脈은 變한다 하였으며, “帝曰 經之常色何如. 岐伯曰 心赤, 肺白, 肝青, 脾黃, 腎黑, 皆亦應其經脈之色也.”라 하여 이 各經脈에 따른 常色으로 肝青, 心赤, 脾黃, 肺白, 腎黑으로 五臟에 따라 五色을 配屬 하였고, 또한 “帝曰 絡之陰陽, 亦應其經乎. 岐伯曰 陰絡之色應其經, 陽絡之色變無常, 隨四時而行也. 寒多則凝泣, 凝泣則青黑, 熱多則淖澤, 淖澤則黃赤, 此皆常色, 謂之無病. 五色具見者, 謂之寒熱.”⁷⁶⁾라하여 絡脈은 四時와 寒熱에 따라 變化된다하여 十二經脈은 內로 五臟과 通하여 五臟의 色인 五色이 常色이 되어 五臟의 色에 應하고 絡脈은 皮膚의 外層에 淺出하여 있어 四時의 寒熱에 應하여 變한다고 하였다⁷⁷⁾. 이와 같이 五色은 臟腑와 연결되어 經絡의 色에도 適用되고 있다.

2. 脈과 色의 關係

『五臟生成論』에 “赤脈之至也 …… 名曰心痺, …… 白脈之至也 …… 名曰肺痺 …… 青脈之至也, …… 名曰肝痺, …… 黃脈之至也 …… 名曰厥疝, …… 黑脈之至也 …… 名曰腎痺, …… 得之沐浴清水而臥.”이라 하여 臟腑를 色으로 表現하여 臟腑의 脈를 보았고, 또한 “五色微診, 可以目察. 能合脈色, 可以萬全.”⁷⁸⁾이라 하여 診脈과 察色을 合하여 診斷함을 중요시하였다.

尺膚와 色脈은 『內經』에 또 하나의 診察方法으로, 이는 脈의 變化와 尺部 皮膚의 變化를 서로 對照하는 것이다(尺部는 下膊의 掌側面을 말함). 만약 尺膚의 色이 靑하면 그 脈은 마땅히 弦해야 하며, 色이 赤하면 그 脈은 마땅히 鉤해야 하고, 色이 黃하면 그 脈은 代해야 하고, 色이 白하면 그 脈은 毛해야 하고, 色이 黑하면 그 脈은 石해야 한다. 만약 그 色이 나타나는데 그 脈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相勝의 脈이 나타나면 죽는다⁷⁹⁾. 이것이 곧 色脈으로 『靈樞·邪氣臟腑病形』을

곡상 응모 논문집, p31

72)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525

73)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471

74) 김광호, 時空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31

75)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7

76)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407 - 408

77)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 407-408

78)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97 - 98

79) 홍원식, 윤창렬, 중국의학사,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7 p77

보면 色과 脈의 관계로서 生死를 論하였는데, “色青者, 其脈弦也, 赤者, 其脈鉤也, 黃者, 其脈代也, 白者, 其脈毛, 黑者, 其脈石. 見其色而不得其脈, 反得其相勝之脈, 則死矣, 得其相生之脈, 其病已矣.”⁸⁰⁾라 해서 脈과 色이 상응하지 아니하고 色을 克하는 脈이 나오면 死亡하고, 生하는 脈이 나오면 病은 호전된다는 것이며⁸¹⁾, 後에 『金匱』에 “假令肝王色青 四時各隨其色 肝色青而反色白 非其時色脈皆當病”⁸²⁾이라 하여 色의 相克이 나타나면 病이 된다는 理論을 적고 있다.

또한 『難經』十三難에서도 “經言見其色而不得其脈, 反得相乘之脈者, 卽死, 得相生之脈者, 病卽自己. 色之與脈, 當參相應, 爲之奈何, ……(중략)……, 五藏有五色, 皆見於面, 亦當與寸口, 尺內相應. 假令色青, 其脈當弦而急, 色赤, 其脈浮大而散, 色黃, 其脈中緩而大, 色白, 其脈浮濇而短, 色黑, 其脈沉濡而滑. 此所謂色之與脈, 當參相應也.”⁸³⁾이라 하여 色과 脈의 관계에 대해 적고 있다.

또한 「脈要精微論」에서도 자세히 보이는데 “肝脈搏堅而長, 色不青, 當病墜若搏, 因血在脇下, 令人喘逆; 其栗而散色澤者, 當病溢飲, 溢飲者渴暴多飲, 而易入肌皮腸胃之外也. 胃脈搏堅而長, 其色赤, 當病折脾; 其栗而散者, 當病食痺. 脾脈搏堅而長, 其色黃, 當病少氣; 其栗而散色不澤者, 當病足跗腫, 若水狀也. 腎脈搏堅而長, 其色黃而赤者, 當病折腰; 其栗而散者, 當病少血, 至令不復也.”⁸⁴⁾이라 하여 色과 脈에 따른 症狀과 病因을 나타냈으며, 「奇病論」에 “帝曰 人有尺脈數甚, 筋急而見, 此爲何病. 岐伯曰: 此所爲疹筋, 是人腹必急, 白色黑色見, 則病甚.”⁸⁵⁾으로 脈과 더불어 色으로 病의 輕重을 說明하였다.

「玉機眞臟論」에서는 眞臟脈과 眞臟色에 대하여 “眞肝脈至, 中外急, 如循刀刃責責然, 如按琴瑟弦, 色青白不澤, 毛折, 乃死. 眞心脈至, 堅而搏, 如循薏

苡子累累然, 色赤黑不澤, 毛折, 乃死. 眞肺脈至, 大而虛, 如以毛羽中人膚, 色白赤不澤, 毛折, 乃死. 眞腎脈至, 搏而絕, 如指彈石辟辟然, 色黑黃不澤, 毛折, 乃死. 眞脾脈至, 弱而乍數乍疎, 色黃青不澤, 毛折, 乃死. 諸眞臟脈見者, 皆死, 不治也.”⁸⁶⁾라 하여 各臟腑의 眞臟脈이 至하면 各臟의 色이 不澤한 眞臟色이 나타난다하였다.

이상을 보면 脈과 色은 診斷의 주요방편으로 서로 긴밀한 關係로 相互 보완적이고, 협조적인 關係를 나타낸다.

2) 病理와 治法과 五色의 關係

1. 病因과 病機와 五色의 關係

(1) 生活環境

「異法方宜論」에선 “東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魚鹽之地, 海濱傍水, 其民食魚而嗜鹹, 皆安其處, 美其食. 魚者使人熱中, 鹽者勝血, 故其民皆黑色踈理, 其病皆爲癰瘍.”이라 하였고, 또한 “南方者, 天地所長養, 陽之所盛處也, 其地下, 水上弱, 霧露之所聚也, 其民嗜酸而食胾, 故其民皆緻理而赤色, 其病癰痺”⁸⁷⁾이라 하여 地域과 氣候등의 生活環境과 食生活에 따라 사람의 皮膚色이 다름을 說明하였는데, 이는 疾病과도 聯關性을 말해주며 뒤에서 說明할 陰陽五態人的 體質 色과 後에 『東醫寶鑑』과 『醫學入門』에서 보이는 肥白人과 黑瘦人的 區分등과도 聯關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病因과 病機

五色의 各色에 따른 病情의 特徵과 症狀을 보면, 「癰論」에선 “肺熱者, 色白而毛敗. 心熱者, 色赤而絡脈溢. 肝熱者, 色蒼而爪枯. 脾熱者, 色黃而肉蠕動. 腎熱者色黑而齒槁.”⁸⁸⁾라 하여 各五臟의 熱證에 五色과 함께 다른 症狀들을 들어 說明하였으며, 「脈要精微論」에서는 “肝脈搏堅而長, 色不青, 當病墜若搏, 因血在脇下, 令人喘逆; 其栗而散色澤者, 當病溢飲, 溢飲者渴暴多飲, 而易入肌皮腸胃之外也. 胃脈搏堅而長, 其色赤, 當病折脾. 其栗而散者, 當病食痺. 脾脈搏堅而長, 其色黃, 當病少氣. 其栗而散色

80) 河北醫學院 :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89.

81)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국상 응모 논문집, p66

82) 張仲景, 仲景全書, 一中社, 서울, 1992, p334

83) 秦越人, 難經集注, 臺灣中華書局, 台北, 中華民國 74年, p61 - 62

84)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480

85)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424

86)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16

87)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48 - 550

88)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401

不澤者, 當病足腫脹, 若水狀也. 腎脈搏堅而長, 其色黃而赤者, 當病折腰”⁸⁹⁾라 하여 脈과 色에 따라 病因을 각각 들어 病이 發病한 各臟에 따른 五色을 說明하였다.

色에 따른 病의 特徵에 대해서는 『靈樞·論疾診尺篇』에 “診血脈者 多赤多熱 多青多痛, 多黑爲久痺, 多赤多黑多青皆見者 寒熱身痛”⁹⁰⁾이라 하였고 「舉痛論」에선 “黃赤爲熱, 白爲寒, 青黑爲痛”⁹¹⁾이라 하였고, 「皮膚論」에서도 “其色多青則痛, 多黑則痺, 黃赤則熱, 多白則寒,”⁹²⁾라 하였고, 「五色」篇에서 “雷公曰 官五色奈何 黃帝曰 青黑爲痛 黃赤爲熱 白爲寒 是謂五官”이라 하였고, 또한 “沈濁爲內 浮澤爲外 黃赤爲風 青黑爲痛 白爲寒 黃而膏潤爲膿 赤其者爲血痛 甚爲癰”이라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靑黑은 痛이고, 白은 寒이 되는데, 黃赤은 「五色」篇 속에서도 風과 熱로 나뉘며, 「舉痛論」에서도 熱로 되어있고, 『靈樞·論疾診尺篇』과 「皮膚論」에선 黑을 痺라 하였다. 顔面望診에서 『靈樞·五色篇』의 내용은 五色으로 症狀를 알아 볼 수 있는 最初의 文獻이 되며 「五色篇」에서 계속하여 “常候關中 薄澤爲風 沖濁爲痺”라고 하여 色の 厚薄濃濁으로도 症狀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沈濁爲內 …… 寒甚爲皮不仁”⁹³⁾이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 張隱庵은 靑黑者는 風寒之色 故로 痛이 되며, 黃赤은 火土之色으로 熱이 되며, 白은 靑肅之氣로 寒이 되니 이로써 外淫之病을 알 수 있다고 했으며, 風은 하늘의 陽邪이므로 黃赤으로도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고, 『內經』을 살펴보면 「五色篇」, 앞은 靑痛, 赤熱, 黃熱, 白寒, 黑痛으로 「五色篇」 뒤는 靑痛, 赤風, 黃風, 白寒, 黑痛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內經』의 理論을 發展시켜서 현재의 韓醫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白色은 虛, 寒證, 蟲症을 主한다. 面赤은 虛熱, 實熱, 血瘀를 主한다. 面靑은 寒, 痛, 瘀血, 驚風을 主한다. 面黃은 濕, 脾虛를 主한다. 面黑은 寒, 痛, 瘀血, 水飲, 腎虛를 主한다고 하였고⁹⁴⁾, 최⁹⁵⁾는 後世에

이러리 臨床實踐을 통하여 五色이론을 발전시켜, 비교적 實際와 附合되게 하였다. 靑色은 風病·寒病·痛症·驚風과 관련하고, 赤色은 熱病(虛症·實熱을 포괄)과 관련되며, 黃色은 濕熱·寒濕 혹은 血虛와 관련되며, 白色은 虛症·寒症과 관련되며, 黑色은 寒症·痛症·勞傷·血瘀등과 관련된다”라 하여 五色主病에 대해 언급하였다.

基本的 病理는 “五色主病”으로 이것은 靑主肝病, 赤主心病 등의 五行의 對應을 말한다⁹⁶⁾.

이것을 綜合하여 病因病機와 결합시키면 다음과 같다⁹⁷⁾.

五色	主病의 症狀
靑	寒證, 痛症, 瘀血, 驚風
赤	熱症
黃	虛症, 濕症
白	氣虛證, 血虛證
黑	腎虛證, 水飲證, 血瘀證

臟腑大小와 色과의 關係는 『靈樞·本藏篇』을 보면 “黃帝曰 何以知其然也 岐伯曰 赤色小理者 心小 …… 白色小理者 肺小 …… 靑色小理者 肝小 …… 黃色小理者 脾小 …… 黑色小理者 腎小 …… 凡此諸變者 持則安 減則病也”⁹⁸⁾이라 하여 臟의 大小와 色과 奏理의 關係를 나타내어 臟腑의 虛實病症을 살피는데 應用하였다.

(3) 體質論과 色の 關係

『靈樞·陰陽二十五人論』에서 “木形之人 比於上角 似於蒼帝 其爲人 蒼色 小頭 長面 大肩背 直身 小手足 …… 火形之人 比於上徵 似於赤帝 其爲人 赤色 廣脰 脫面 小頭 好肩背腠腹 小手足 …… 上形

89)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480

90)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526

91)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372

92)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403

93)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22 - 527

94) 김광호, 時·空·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p26

95) 최영성, 이철완, 五色論과 色彩療法에 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6 Vol. 6 No.1. p514

96) 공희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곡상 응모 논문집, p54

97) 李鳳教: 漢方診斷學, 서울, 成輔社, 1992, p.47.

98)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354 - 355

之人 比於上宮 似於上古黃帝 其爲人 黃色 圓面 大頭 美肩背 大腹 美股脛 小手足 多肉…………… 金形之人 比於上商 似於白帝 其爲人 方面 白色 小頭 小肩背 小腹 小手足 如骨發踵外 骨輕 身清廉…………… 水形之人 比於上羽 似於黑帝 其爲人 黑色 面不平 大頭廉頤 小肩 大腹 動手足 發行搖身 下尻長背”⁹⁹⁾라 하여 五行에 따른 木火土金水人을 나누고 身體의 色과 體形을 論하였으며 各 體質에 따른 經絡을 배속하였다.

體質과 色의 관련성은 方法論에서 보면 生理的인 色은 相生의 原理에 따라 顔面 등을 통해 體外로 發顯되는데, 主色과 客色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主色은 사람마다의 體質에 따른 面色을 말하며, 『靈樞』, 『二十五態人論』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¹⁰⁰⁾

한편 客色은 사람과 자연과 연관된 것으로 四季節, 밤과 낮, 날의 개이고 흐림 등에 따라서도 皮膚色이 變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봄엔 푸른 빛이 돌아야 한다(春-木-肝-靑) 등인데, 이는 季節上 五行의 相剋이 되는 色을 病色으로 보았다.¹⁰¹⁾

2. 治法과 色의 關係

(1) 針刺治療

針刺 治療面을 살펴보면, 病을 診斷함에 色을 통한 診斷을 행한 後 그 病症에 맞는 治法中 針刺治療를 行하는 것으로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篇에서는 “黃帝曰 何謂臟主冬 時主夏 音主長夏 味主秋色 色主春 願聞其故 岐伯曰 病在臟者 取之井 病變於色者 取之榮 病時間時甚者 取之輸 病變於音者 取之經 經滿而血者 病在胃 及而飲食不節得病者 取之於合 故命曰味主合 是謂五變也”¹⁰²⁾이라 하여 五變에 따른 針刺 治法으로 病이 色에서 變하는 것은 榮을 取한다고 하였으며, 『靈樞·經脈篇』의 魚際 絡脈으로 胃의 寒熱을 診斷한 後 “凡刺寒熱者 皆多

血絡 必問日而一取之 血盡而止 乃調其虛實 其小而短者少氣 甚者 瀉之則悶 悶甚則仆 不得言 悶則急坐之也”¹⁰³⁾라 하여 血絡을 刺하여 治療한다 하였다.

또한 『異法方宜論』에서도 東方地域의 사람에 대하여 “東方之域, 天地之所始生也, 魚鹽之地, 海濱傍水, 其民食魚而嗜鹹, 皆安其處, 美其食. 魚者使人熱中, 鹽者勝血, 故其民皆黑色踈理, 其病皆爲癰瘍, 其治宜砭石. 故砭石者, 亦從東方來.”¹⁰⁴⁾라하여 癰瘍이 發病을 잘하므로 砭石으로 治한다고 하였다.

五變에 따른 井穴을 取하는 것은 五色에 따른 診斷과 治療라고 볼 수 있으나 『經脈篇』과 『異法方宜篇』은 刺絡의 意味로 그 血脈을 疏通시키는 意味로 볼 수 있다.

(2) 五色과 五味의 關係

色과 五味의 關係는 『內經』의 여러 篇에 나오는데 그중 『靈樞·五味』篇이 매우 상세한데 “五色 黃色宜甘 靑色宜酸 黑色宜鹹 赤色宜苦 白色宜辛 凡此五者 各有所宜 五宜 所言五色者”라 하여 五色에 따른 宜味를 說明하여 色과 味의 關係를 나타내었고, 또 같은 篇에 “脾病者 宜食秬米 飯牛肉棗葵心病者 宜食麥羊肉杏薤 腎病者 宜食大豆黃卷猪肉栗蠶 肝病者 宜食麻犬肉李韭 肺病者 宜食黃黍雞肉桃葱”이라 하여 各 臟病에 따른 宜食物을 자세히 이름까지 들어 說明하였으며, “肝色靑 宜食甘 秬米飯牛肉棗葵皆甘 心色赤 宜食酸 犬肉麻李韭皆酸 脾色黃 宜食鹹 大豆豕肉栗蠶皆鹹 肺色白 宜食苦 麥羊肉杏薤皆苦 腎色黑 宜食辛 黃黍雞肉桃葱皆辛”¹⁰⁵⁾이라 하여 臟과 色과 味에 대하여 系統을 이루어 五臟病에 따른 各臟의 宜食物들과 五色의 各色에 따른 宜食味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를 더 발전 시켜, 신¹⁰⁶⁾은 『五色論』은 色을 五行에 結부시켜 人體에 적용한 것으로 生理, 病理, 診斷方面으로 주로 應用이 되었고, 治療面에 있어서는 歸經學說에 따른 藥物治療가 있다고 하였고,

9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一中社, 서울, 1991. p441 - 448

100) 공회일, 색채의 한의학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극상 응모 논문집, p61

101) 申載鏞 : 續 알기쉬운 한의학, 서울, 同和文化社, 1992, p.222~224.

102)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317

103)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7

104)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48

105)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110

106) 신승우 외3, 색채요법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제10권 제2호, 2000. p154

취107)는 治療에 관하여는 五色과 五臟 그리고 五味를 連繫시키 藥物의 구체적인 應用을 說明하였는데, 『素問·五臟生成論』에 “色味當五臟, 白當肺辛, 赤當心苦, 青當肝酸, 黃當脾甘, 黑當腎鹹, 故白當皮, 赤當脈, 青當筋, 黃當肉, 黑當骨.”¹⁰⁸⁾이라 하여 色과 味와 五臟과의 關聯性을 說明하였고, 『本草綱目』에 “故天地賦形, 不離陰陽 形色自然 皆有法象…… 空青法木, 色青而主肝. 丹砂法火 色赤而主心 雲母法金 色白而主肺. 磁石法水, 色黑而主腎, 黃石脂法土, 色黃而主脾 故觸類而長之, 莫不有自然之理”라 하여 藥物歸經學說의 內容의 하나로 五色五味와 五行所屬을 通하여 藥物治療에 관련해 色을 利用하였다.

(3) 色의 內外에 따른 先後治法

『五色』篇을 보면 “五色各有臟部 有外部 有內部也 色從外部走內部者 其病從外走內 其色從內走外者 其病從內走外 病生於內者 先治其 後治其陽 反者益甚 其病生於陽者 先治其外 後治其內 反者益甚”¹⁰⁹⁾라 하여 色의 從內外에 따라 治法에도 先後로 나누어 治療함을 說明하고 있다.

이와 같이 治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察色하는 望診을 通하여 病을 診斷하고 그에 맞는 針刺와 藥物治療를 行하며, 治法에서도 色의 從하는 內外에 따라 病의 內外 先後를 나누어 治療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治法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中醫康復學』에선 中醫의 五色을 五臟에 配屬시킨 理論을 근거로 患者의 눈과 顏色을 관찰한 결과 疾病과 心身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色을 疾病의 回復에 利用하는 것을 “色彩療法”, “色療”라 稱하여 “五臟補泄色彩力”을 만들어 이를 利用하여 治療에 利用하고 있다.¹¹⁰⁾

III. 結論

이상 五色에 관한 『內經』에 관련된 篇들을 研究 調査한 後 五行에 관련된 內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리게 되었다.

1. 色을 五行에 配屬하여 人體에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臟腑를 五行에 配屬하여 이를 演繹하여 色을 五臟에 配屬하는 방법과, “味生色”이라 하여 味를 通하여 色을 五行에 配屬하는 방식이 있는데 『內經』의 五行配屬과 관련된 「陰陽應象大論」등 다른 篇들을 살펴보면 各文句 속에 各臟이 먼저 나오고 後에 配屬色이 出하는 形式이므로 이는 五臟을 五行에 配屬하고 이를 人體組織과 外部環境의 變化에 까지 配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內經』에서 五色은 青·赤·黃·白·黑이지만 「五臟生成論」과 「脈要精微論」에서 各色의 비유를 들어 五色을 정의하였고 또한 그 色뿐만 아니라 澤과 神의 有無가 察色에 있어서 生과 死의 診斷에 중요시되었다.

3. 『內經』에서는 五行에 따라 五臟을 配屬하였고 五臟은 또한 人體의 組織의 五行 配屬에 基準이 되기 때문에 「經絡論」에서 보면 “心赤, 肺白, 肝青, 脾黃, 腎黑”이라 하여 經絡의 常色이 있고, “陰絡之色應其經”이라 하여 陰絡의 色도 經의 色에 應한다하여 經絡 또한 五行의 配屬에 따라 五色을 配屬하였다.

4. 『內經』의 診斷部分에서 五色을 利用한 望診을 살펴보면 「五色篇」을 중심으로, 「五閱五使篇」과 「玉版論要篇」과 다른 篇들도 面部와 眼睛의 五色變化와 浮沈, 聚散, 澤沃, 明暗들을 살피고 面部의 部分을 各臟에 대응하여 그 臟의 病變을 살펴 病의 豫後와 原因등을 살폈으며, 「五臟生成論」과 「五色論」에서는 色澤으로 生死의 色을 說明하였고, 「脈要精微論」, 「玉機眞藏論」, 「邪氣臟腑病形」등은 脈과 色의 關係를 說明하여 色脈이 望診과 切診으로 診斷에 중요한 요소로 서로 相合해야 한다고 하였다.

5. 五色에 대한 『內經』에서의 病理的인 面은 「痿論」에선 各臟의 熱症과 「風論」은 各臟風症에 五官의 察色部位 五色出現함을 說明하였고, 「脈要精微

107) 최영성의3, 五色의 조사와 한약 병용이 Ethanol 中 毒白鼠의 尿酸 및 효소활성에 미치는 영향, 한방재활 의학회지, 1997 Vol.7 No. 1. p90

108)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24

109) 정사덕의,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p524

110) 최영성, 이철환, 五色論과 色彩療法에 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6 Vol. 6 No.1. p509

論』에서는 各臟의 病과 色을 나타냈고 다른 篇들에서도 臟腑의 病症에 관련된 色이 나타난다 하였는데, 이는 五色主病이라 하여 靑主肝病, 赤主心病등을 들어 各臟의 病과 色을 말하였다.

6. 『內經』의 五色이 各各 主하는 病變의 性質에 대하여는 「舉痛論」은 靑黑痛, 白寒, 黃赤熱이라 하였고, 「皮膚論」은 靑痛, 黑痺, 黃赤熱, 白寒이라 하였으며, 「五色篇」은 靑黑痛, 黃赤熱, 白寒이라고 하고 또한 黃赤을 風이라고도 하였고, 「論疾診尺篇」에는 赤熱, 靑痛, 黑久痺라고 하여 黃赤과 黑色의 主이 달라, 各篇에서 五色이 主함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現代 韓醫學에서는 白은 虛, 寒症, 蟲症을, 赤은 虛熱, 實熱, 血瘀를, 靑은 寒, 痛, 瘀血, 驚風을 主하고, 黃은 濕, 脾虛를, 黑은 寒, 痛, 瘀血, 水飲, 腎虛를 主한다.

7. 『內經』에선 五色을 이용하여 臟腑의 大小와 體質에 관하여 敍述하였는데, 『靈樞·本藏篇』에서 “赤色小理者 心小”등을 說明하면서 各臟의 大小를 奏理의 五色과 大小를 통하여 說明하였고, 『靈樞·陰陽二十五人論』에서는 五行에 따른 사람의 特徵에 대하여 說明하면서 木形之人은 靑色, 火形之人은 赤色으로 표현하면서 色과 五行의 關係를 따라 사람의 體質에 따른 色과 特徵을 說明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內經』에 보이는 五色에 관한 內容은 望診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보이고, 또한 病變의 特徵을 나타내기도 하며, 더나가 體質의 人面까지 人體의 여러 方面에서 五行과 결합하여 運用되어 지고 있어, 지금도 五色은 韓醫學에서 診斷과 病理 生理的인 面에서 사용되고 특히 望診의 分野에서 病의 原因과 豫後등을 診斷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다.

參考文獻

1. 홍원식, 윤창렬,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원, 서울, 1987.
2. 최영성의3, 五色의 조사와 한약 병용이 Ethanol 中毒白鼠의 尿酸 및 효소활성에 미치는 영향, 한방재활의학회지, 1997 Vol.7 No. 1.
3. 김광호, 時·空 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

望診에 대한 研究,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9.

4. 楊東喜, 本草備要解析, 國興出版社, 台北, 中華民國74年.
5. 윤창렬, 醫哲學, 대전대학교 원전의사학실, 2002.
6. 윤창렬, 醫易學, 대전대학교 원전의사학실, 2002.
7. 張仲景, 仲景全書, 一中社, 서울, 1992.
8.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9.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一中社, 서울, 1991.
10.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一中社, 서울, 1991.
11.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眞玄, 서울, 1980.
12. 李時珍, 本草綱目通釋, 學苑出版社, 北京, 1992.
13. 李鳳教, 漢方診斷學, 成輔社, 서울, 1992.
14. 李克光 主編,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9.
15. 공희일, 色彩의 韓醫學 적용 방법론 연구, 제6회 현곡상 응모 논문집, 1996.
16. 권기덕, 色彩治療의 타당성에 관한 소고,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5집 제1호,
17. 최영성, 이철완, 五色論과 色彩療法에 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6 Vol. 6 No.1.
18. 신승우 외3, 色彩療法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제10권 제2호.
19. 정사덕외, 內經, 知音出版社, 北京, 1984.
20. 申載鏞, 續 알기쉬운 韓醫學, 同和文化社, 서울, 1992.
21. 葛洪, 抱朴子, 자유문고, 서울, 1989.
22. 蕭吉, 五行大義, 新文豐出版公司, 台北, 中華民國 76年.
23. 皇甫謐, 鍼灸甲乙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0.
24. 秦越人, 難經集注, 臺灣中華書局, 台北, 中華民國 74年.